

# (주) 제이디에프

**즐거움 (Joy) + 꿈 (Dream) + 재미 (Fun)**  
**어린이들에게 행복 콘텐츠를 만들어 주는 벤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어린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본 이 동요의 가사처럼 실제 어린이들을 동화속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꿈(★)’이 담긴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애니메이션을 DVD와 동화책 등으로 만들어주는 JDF(대표 김규동)가 그 주인공이다. ‘즐거움(Joy)’, ‘꿈(Dream)’, ‘Fun(재미)’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사명처럼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꿈과 재미를 안겨주는 행복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가치를 내걸고 사업을 시작한 JDF를 찾아갔다.



### ◆ 독창적인 사업아이템 보여주겠다

JDF 김규동 대표는 벤처 1세대의 주역으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20년간 일하며 핸드소프트의 CEO를 역임한 인물. 그런 그가 2005년 6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새로운 벤처 회사를 차렸을 때 업계 사람들은 의아한 반응과 함께 사업성공에 물음표를 달았다.

국내의 대표적인 SW 회사인 핸드소프트에서 대표까지 맡았던 그가 힘들다던 창업의 길을 택한 이유가 궁금했다. 그런데, 답변은 의외로 간단했다.

“핸드소프트를 나올 때,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죠. 50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부터 설립했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전 준비 없이 새로운 벤처에 뛰어들었지만 그에게는 누구도 헤내지 못했던 꿈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IT와 SW를 서비스 분야와 연계, 독창적인 서비스로 만들어 세계시장에 여주고 싶었다”고 창업동기에 대한 이유를 달았다.

김 대표는 JDF를 설립한 후, 몇 개월간은 사업 아이템 찾기에 주력했다. 사업 아이템을 비즈니스와 연계시킨 다음에 창

업을 시작하는 방식과 반대로 회사를 먼저 차린 다음에 사업 아이디어를 나중에 찾는 역발상을 택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웹상에서 캐릭터 자동생성 기술을 접하고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만드는 일에 착수했다.

그는 일사적인 시류를 쫓아 반짝 뜨다가 사라지는 사업아이템이 아닌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분야를 찾던 중 어린이 대상 서비스를 생각해 냈다. 또한 전 세계 어린이가 다 알 수 있고, 해피엔딩의 교훈을 담은 세계명작동화 동화 12편을 선정, 자체 보유한 캐릭터 및 동영상 자동생성 기술과 결합시켰다.

### ◆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콘텐츠 찾기

이 기술은 개인 맞춤형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주는 개인맞춤형 행복콘텐츠 서비스로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 또한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국제 특허(PCT)를 출원해놓은 상태다.

JDF는 이 특허기술을 응용해 어린이 고객 누구나 남녀 각각 6종의 세계명작동화 중 자신이 원하는 명작동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캐릭터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DVD)을 비롯해 아트북·구현동화카드·티셔츠 등 다양한 개인맞춤형 상품을 제작해 주는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 상품은 『플라니 세



- 대표 : 김규동
- 설립 일 : 2005년 7월     ■ www.flaani.com
- 사업개요 : - 어린이 대상 플라니 애니메이션(DVD)  
- 개인맞춤 아트북 및 구연동화카드   - 외국어 교육(ESL 등)
- 자본금 : 5억                ■ 직원수 : 7명



『계명작동화』라는 브랜드로 출시되어 3~7세 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고. 현재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을 비롯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엘리스 스튜디오에서 판촉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 ◆ 우리 아이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사진 한 컷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세계 명작동화속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캐릭터로 등장시켜 어린이들에게 꿈과 행복, 자신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JDF가 보유한 캐릭터 및 동영상 자동생성 기술을 이용하면 어린이들 자신이 보는 바로 그 동화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세상에서 하나뿐인 애니메이션을 DVD, 동화책 등으로 만들어준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여자 어린이가 명작동화 <백설공주>를 선택하면 그 아이를 꼭 빼닮은 캐릭터를 생성시킨 후, 실제 동화속 콘텐츠의 주인공이 되는 식이다.

김 대표는 자체 보유한 특허기술을 응용한 비즈니스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소개했다. 드라마·영화·뮤직비디오 등 동영상의 명장면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와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모바일게임 그리고 휴대폰 배경화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하다고.

예를 들어 <겨울연가>와 같은 드라마에서 여주인공 최지우를 대신한 본인의 캐릭터가 극중에서 배용준의 연인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식이다.

#### ◆ 개인맞춤형 행복콘텐츠 시장 무궁무진해

즐거움이 있는 꿈과 재미를 주겠다는 의미에서 회사 이름을 ‘즐거움(Joy)’, ‘꿈(Dream)’, ‘재미(Fun)’의 영단어 앞글자를 따서 JDF로 정했다는 김 대표. 내년에는 해외 라이선스 사업을 펼쳐 2010년까지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는 세계적인 개인맞춤형 콘텐츠 전문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엘리스 스튜디오를 비롯해 미국의 미디어콘텐츠 기업, 장난감유통기업 등과 라이선스 제공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1세기 메가트렌드인 개인맞춤형 행복콘텐츠 시장의 커다란 가능성에 주목하고 40대 중반에 새로운 벤처를 시작한 김 대표.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처럼 앞으로 JDF의 행보가 기대된다.